



日 재계, 급격한 엔화가치 하락 우려

박정희 선임연구원

■ 일본 아베 신조(安倍晋三) 총리가 엔화약세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재계는 이 같은 엔화약세가 일본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함.

- 일본 기업인들은 그동안 수출의존도가 높은 전자·자동차 업체들의 수출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엔화 약세 조치를 정부에 촉구해 왔으나, 최근 아베 정권의 엔화 평가절하 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.
 - 시카네 마사히로(坂根 正弘) 코마츠 회장은 ‘셀 재팬(sell Japan)’이 초래되면 엔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, 시가 도시유키(志賀俊之) 닛산 대표도 투자자의 신뢰가 무너지면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함.
 - 또한 도시바의 사사키 노리오(佐々木則夫) 대표는 엔화 약세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에너지 수입 가격을 높일 것이라며, 에너지와 엔화 평가절하 간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함.

■ 한편,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가 20조 엔 규모의 긴급 경제대책을 이르면 11일까지 수립하여 재정투입을 통한 경제회생 전략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임.

- 이번 정책은 지진 복구대책, 기업 중심의 성장전략, 지역 활성화 등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, 공공사업에만 5조 엔 이상이 투입될 계획임.
- 이 경우 2012년 회계연도(2012년 4월~2013년 3월) 국채 발행 규모가 50조 엔에 달하게 되어, 추경예산 13조 엔 중 절반에 가까운 5조 엔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됨.
 - 최근 국채 발행 증가와 재정 악화 우려 등이 겹치면서 일본의 장기금리는 4개월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, 장기금리 상승으로 정부의 국채 발행 비용이 증가하고 국채를 대량 보유한 금융회사의 수익률 악화로 금융산업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.¹⁾

(WSJ 外, 1/8)

1)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 전만 해도 연 0.7% 이하를 맴돌며 9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나, 자민당 선거 승리 이후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. 7일 현재 0.84%를 기록해 지난해 8월 21일 이후 약 4개월 반 만에 최고치로 올랐음.